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인톤솔트
코리아컨설팅 대표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지만 분명 90년대 중반의 어느 날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였다. 당시 삼성의 새로운 광고 문구는 광고관 자체가 매우 커서 시선이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소리치는 듯해 보였다. ‘Samsung-The best company in the world’(삼성-세계 최고의 회사) 순간 웃음이 나왔다, 잠시 후 이 광고 문장은 재미로 보는 작품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광고인지 한 순간 의아하게 생각해 볼 정도였다.

어쨌든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배운 것들은 이곳의 모든 것이 ‘최고’, ‘최대’, ‘최선’의 것들이라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겸손을 미덕으로 여겨서인지 내게는 이런 큰소리치는 듯한 자랑식의 표현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며 최대, 최고 등의 수식어가 붙은 것들에

잘못된 메시지 보내기

대해 맞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유를 찾아보게 만든다.

어떤 이가 다가와서는 나는 최고라고 말을 걸어왔다면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순간 이상하다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통역가와 컨설턴트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한국 회사들에게 우선적으로 부탁하는 것 중의 한가지가 국외 비즈니스 상대들에게 좀 더 겸손하고, 지나치게 과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 몇 년을 재빨리 돌려 보았다. 2008년 약 20여개국 나라의 대사들로 이루어진 대표단과 함께 여수를 방문했던 적이 있다. 그들이 이야말로 지구촌 곳곳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알아온 국제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여수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공식 초청에 따라 2012년에 개최될 엑스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홍보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보기 위해 홍보관에 들어가게 되었다. 물론 10분간 상영된 영상물은 내가 짐작한 그대로였다. 멋진 컴퓨터 그래픽과 메시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영상물은 우리에게 뉴욕 또는 런던이나 파리와 같은 도시는 있어버리라는 식으로, 2012년 전 세계는 오직 여수를 향해 바라보게 될 것이며, 여수엑스포는 세계 역

사를 바꾸게 될 거라는 식이었다. 그날 통역을 부탁받은 나는 방문단에게 일종의 사과를 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것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부탁했다.

다시 이 글의 처음의 삼성에 관한 예기로 돌아가 보자. ‘디 에아즈테’(의사들)라는 독일의 한 유명한 펑크록 밴드가 있다. 그들은 늘 ‘세계 최고의 밴드’라고 주장한다. 콘서트장 무대에 커다랗게 현수막을 걸거나 밴드 이름의 수식어로 자주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그들의 음악은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웃기고, 기발하고, 능청스러운 재미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계 최고라는 선전 구호를 절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원치 않는다.

자신의 언어와 문화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은 인식이나 지각이 자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같은 문화권 안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하고 동기부여가 될만한 말들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웃기거나 모욕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는 목표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이제 삼성은 세계 최고란 선전문구를 지속적으로 내건 지 20여 년이 되었고, 그동안 큰 성장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음에는 틀림

없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갤럭시 4 모바일폰의 론칭 이벤트에서 그들은 브로드웨이식의 쇼를 벌였고, 세계 곳곳에 큰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 호평이 아니었다. 기술에는 완전 문화외한 행복한 주부,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 등 사회의 고정관념이 담긴 완전히 낡은 성차별적 견해를 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일이 있던 지 몇 주 후 인도에서 개최되었던 또 다른 한 론칭 행사에서는 ‘강남 스타일’을 ‘삼성스타일’로 개사한 이목을 끌려는 지극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하지만 현지인에게는 너무도 기이하고 선정적으로 지각되었기에 따라 또 한 번 조롱당하고 말았다.

본문 삼성이 좋은 자본가와 함께 일하는데 없었던 큰 생각하긴 어렵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자본가와 일을 하면서도 조언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구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한국은 지난 20년간 더욱더 국제화되었고, 삼성과 같은 한국의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관통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바른 메시지로 한국과 그들의 상품과 행사를 홍보하는 데에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확신한다.

의료칼럼

60세에도 돋보기 벗는다



김재봉
밝은광주안과 원장

세상이 공평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늙다는 데 있다. 아무리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쥐었다고 해도 늙으면 흰머리 나고, 눈은 침침해지고, 귀는 잘 들리지 않는 게 진리다. 하지만 건강 100세 시대와 함께 청춘을 찾으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춘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노화로 인한 장애나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다양한 시술들이 있따고 있다.

특히 안과 분야는 노안에 따른 불편을 해

소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시술이 어느 분야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돋보기에 의존했던 노인 환자들이 돋보기의 불편함을 덜고, 활동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노인 수술을 노크하는 경우가 많다. 글씨나 숫자를 많이 보는 사무직·금융 종사자·전문직·목회자·주부 등이 수술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젊은층에서 라식·라섹이 보편화됐다면 중년층에서는 노인 수술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밝은광주안과는 최근 지역 최초로 노인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중년, 노년층의 관심 탓에 병원에는 매일 노인수술에 대한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 가족의 증상을 설명하며 노인수술이 가능한지 묻는 친구나 지인들의 전화도 심심찮게 걸려오고 있다. 각막 상태와 시력 및 근시·난시 등의 정도에 따라 시술 여부는 물론 시술 종류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병원 방문을 권유하고 있다.

노안이란 나이가 들수록 눈으로 보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

를 말한다. 질병이라기보다는 수정체의 노화에 따른 눈의 장애 현상이다. 주로 40~50세에 이르면 노안이 시작되며 가까이 있는 물체를 잘 볼 수 없어 책이나 신문을 볼 때 하리를 뒤로 젖혀 멀리 놓고 보게 되는 데이 것이 노안이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노화하는 기관이다. 이로 인해 노안은 우리의 눈에서 초점을 조절하는 수정체의 탄력이 약해지거나 혹은 비대해지면서 발생하고, 이에 따라 근거리 시력이 떨어지게 된다.

노안의 가장 고전적인 해결 방법은 돋보기를 쓰거나 렌즈를 착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돋보기는 사용하기가 번거롭고 해마다 도수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단점이 있다. 최근 돋보기 없이 젊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중년들이 늘면서 수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노안수술에는 카메라렌데이, 레스토렌즈 삽입술, 노안라식 등이 있다.

이중 카메라렌데이와 레스토렌즈 삽입술의 장점을 합친 수술이다. 노안교정은

사물을 볼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시안’(主視眼) 대신 ‘비주시안’(非主視眼)을 교정한다. 주시안은 원거리와 근거리를 보는 기능이 뛰어나, 이를 교정하면 원거리를 볼 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술은 비주시안에 인레이 렌즈를 삽입해 근거리와 중간거리의 시력 회복을 크게 개선한다.

카메라렌데이 수술은 이전에 백내장 수술이나 라식수술을 받은 사람도 시술이 가능하고, 시술을 받은 후에도 백내장 수술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개입차가 있지만 대부분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시력이 향상되고, 수술 후 원치 않을 때만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렌즈를 제거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년층도 수술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시술도 불가능한 경우는 있는 법. 일단 안과를 방문해 검사와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안구구조증이 심하거나 심각한 약시나 사시, 황반병성 등의 질환이 있으면 시술이 어렵다.

社說

5·18 33주년, 국민통합의 場으로 승화돼야

5·18 광주민주화운동 33주기를 맞아 5·18묘역을 비롯한 광주시내 전역에서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5·18 묘역에는 단체 추모객이 줄을 잇는가 하면 5월 영령의 넋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각종 기념행사도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물론 여야 지도부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 김병일 대구시장 등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18일 광주를 대거 방문할 예정이어서 전국민의 시선이 광주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도 현실화된다면 5·18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처음 참석한 뒤 내리 4년간 ‘대독 총리’로 갈음했기 때문이다. 그 공백기간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식순에 제외되면서 정부와 5월 단체가 별도의 기념식을 치르는 진통을 겪었고, 여야 정치권의 참석도 의례 수준에 그쳤다.

학교폭력 대책 일선에선 곁돌고 있다니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선 학교의 의지가 약한데다 대책이 전시성에 불과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순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들이 선도부 3학년 여학생을 집단폭행한 사건도 학교와 경찰의 대응이 얼마나 어수룩했던가를 보여준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미온적으로 대처해 여학생이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가해 및 피해학생을 격리하지 않고 방치해 여학생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학교 측은 해당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 달이 지나서야 선도위원회를 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변명일 뿐이다. 폭력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가해학생을 처벌해 피해 여학생을 보호하는 게 상식이 아닌가.

또 학교전담경찰관은 사건 발생 이후 수차례나 학교를 방문했으나 폭력 발생

그러한 면에서 이번 33주년은 국민대통합의 장(場)을 만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국민대통합을 국정기조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5·18 기념일에 박 대통령이 참석해 자연스럽게 정치 지도자들과 약속을 나누고, 5·18 정신과 국민통합을 천명하는 차체로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5·18은 우리 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민초의 힘으로 군부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룬 바탕에 5·18 정신이 있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주와 인권, 평화의 5월 정신은 국민대통합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대통합을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5·18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 논란이 된 ‘임을 위한 행진곡’도 함께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기초교육이나 이뤄지는지 묻고 싶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길은 무엇보다 학교의 의지가 중요하다. 한 달씩이나 대처를 하지 않았다니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경찰도 학교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며칠 만에 한 번씩 둘러보는 요식행위로 일관한다면 예방 자체가 곁돌 수밖에 없다. 학교나 경찰 모두 직무유기다.

기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정치시민교육



정영택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주권재민.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이념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존재로서 동등한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소중히 여기거나 이를 반드시 행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보다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공들인 권리가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공기처럼 원래 주어진 선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돌아켜보면 현재 우리가 누리는 권리가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 아닌 많은 사람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값진 보물과 같음을 알 수 있다.

1948년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대한민국 수립이 선포된 후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역사적 진통을 겪으며 짧은 기간 내에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해 낸 대단한 역량을 가진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그 외형적 성장의 부작용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과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이들의 회색과 짙으로 어렵게 씩씩 튀워낸 한국적 민주주의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민과 과제에 당면해 있다.

선진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높은 민주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의 적극적 참여라 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발생하는 급격하고 역동적인 사회변동에 기인한 선거환경의 변화도 다시금 국민 의식수준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의식수준

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우리 선관위에서는 일반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민주시민정치교육 공식기관으로서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선거연수원을 확대하여 민주시민정치교육 전문가로서서의 구성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비·개편한다.

민주시민교육 강사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여 현장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각급학교와 시민사회단체, 교육·훈련기관의 민주시민교육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운영된다. 또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상설 교육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공식 민주시민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연수원에서는 올해부터 정치·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민주시민정치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사·도별로 다년간 꾸준히 시행해온 정당·선거 관계자, 유권자 및 미래유권자, 다문화가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더욱 많은 사

람에게 교육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비롯하여 선거사무원 등 선거관계자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열어 선거와 관련된 기본 소양 및 심화교육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교원직무 연수, 정치현장을 체험학습하는 대학생 정치참여 과정, 초·중·고등학생 미래유권자들의 정치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청소년 리더 및 새내기 유권자 과정, 외국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 연수 등 올바른 시민의식과 가치관 정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아래 연중 실시된다.

앞으로 민주시민정치교육이 국가나 국민 모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적 교양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모두가 행복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길이 험난하고 구비긴 길이 될지, 널찍하고 곧은 지름길이 될지는 바로 지금 국민과 유권자 여러분의 민주시민정치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앞에 세워놓고 인터넷을 클릭했다가 아들이 이 보는 앞에서 음란물이 나와 기겁할 뻔 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음란 사이트 불법 게재는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 검색량이 많은 블로그나 사이트를 상대로 이 같은 범죄를 자행한다. 이처럼 사이트에서 음란성 광고글이 발견됐을 경우 운영자에게 연락해 조치하는 게 최선이지만 네티즌들은 그런저런 사정을 모르고 클릭을 하게 되니 그냥 앉아서 당하고 마는 것이다.

▲유병희·광주시 북구 일곡동

無 等 鼓

최근 잘 나가던 KIA타이거즈가 김상현을 트레이드 시킨 날부터 갑작스레 극심한 타격 슬럼프에 빠지면서 충격의 5연패를 당하자 호사가들은 미 메이저 리그에서 유명한 ‘밤비노의 저주’를 패러디해 ‘김상현의 저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KIA 팬들로서는 올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환골탈태한 KIA의 폭발적 타격쇼를 보면서 매일매일 힐링을 하다가 갑자기 뒤뚱수술을 맞은 격이 됐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에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터져나오며 그렇지 않아도 심한 지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특히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정권마다 대통령 취임 초기에 ‘방미 징크스’와 ‘사과 징크스’가 되풀이되고 있어 고사라도 지내야 할 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새 정부 장·차관 후보자 있던 낙마사태에 대해 사과(취임 33일)했고, 4월12일에는 인사과동에 대한 사과(취임 46일), 77일만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 미국을 방문해 한·미 쇄고 협상을 타결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안정성 문제로 촛불집회가 들불처럼 번져 86일만에 두번이나 사과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92일만에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측근인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의 생수회사 장수천 지원과 형 노가 갑자기 뒤뚱수술을 맞은 소유주 논란 때문이었다.

정권마다 벌어지는 취임 초 사과 징크스는 단순한 징크스가 아닌 모두 대통령 자신들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었다. 박 대통령도 주변의 술한 반대에도 윤창중씨를 기용했다가 결국 부메랑을 맞은 것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초 사과 징크스를 극복하고,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불통 인사’부터 가워야 한다. 귀를 열어 여론에 부합하는 공직자 인선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인터넷 사이트 갑자기 튀어나온 음란물 황당

요즘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곤 흥분나 광고 등이 성행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묘하게 관련 기사를 삽입해 음란물을 홍보하는 신종 수법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클릭 수가 많은 언론사의 기사에 해당 검색어를 삽입하고 여성들의 사진을 버젓이 게재하는 사례도 있다. 정말 인터넷을

열었던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보게 될까 걱정이다.

최근 자주 검색하는 모 블로그의 이름을 검색했는데 여성의 하체 부위가 강조된 사진이 블로그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에 포털 사이트에 즉시 삭제요청을 한 뒤 지워버렸다. 가짜소문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런 경우는 언제든지 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汶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광)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